

# 작목 전환·농번기 일손 지원...농업 문제 해결 나선 '농협'

###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저렴한 인건비·숙소 지원·전용보험 마련 곡성 옥과농협, 작목 전환 '무이자 대출'...강진농협, 1000원 식사 제공

농사가 제값 받기 힘든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익은 커녕,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게 농업 현장이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없이는 농사 짓기 힘들어진 지 오래다. 한 해 작황에 생계가 달렸는데, 기후위기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두려워하는 농민들도 많다.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농협의 지원 정책들을 찾아봤다.

◇무이자 대출로 농민 작목 전환 힘 실어줘=기후 변화로 농산물의 재배 적지(適地)가 바뀌면서 갈수록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재배 작물을 바꿀 엄두를 못내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배운 게 이 농사밖에 없어 수십 년 터전을 옮길 수도, 포기할 수도 없어서다.

곡성 옥과농협은 이런 농민들 입장을 감안, 신소득 작목을 선정하고 농민들의 작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년 무이자 대출'을 내걸었다.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의 결정으로 농민들이 사과와 배농사 대신, 전혜향·레드향, 카라향 등 만감류 농사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였다. 군이 보조금을 주고 농협이 지원해도 전체 시설 비용의 3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 시설하우스·보온커튼·묘목대·관수시설 등 설비를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처음 나무를 심어 열매를 맺어 출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4년)을 고려했다. 지원 농가를 조정(한 해 3개 농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5년 전 이렇게 조성된 '옥과농협 만감류 특화단

지'는 '옥과향'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지역의 소득 작물을 키워내는 효과 단지로 성장했다.

◇일손 없는데 계절근로자도 지원해줘=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농번기철이면 제 때 '살만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력지원센터를 찾다니며 요청하는 게 당연해졌다.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하루 15만원 이상 줘야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식사와 간식도 챙겨주는 번거로움은 농민들 몫이다.

농협 전남본부가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민들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호응이 대단하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392명으로 하루 일당은 10만원이다. 민간을 통해 지원받는 외국인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농협이 숙소까지 마련해 책임지고 인력을 공급하면서 바쁜 농번기철 일손 구하느라 애를 태울

일도 줄어들었고 식사 등을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최근에는 비가 와 계절근로자들이 쉬는 경우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의 각종 사업운영 리스크를 보장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종합보험'이라는 전용보험도 마련했다.

농촌 현장의 호응이 커 전남도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남(거점형·92명), 담양(마을형·35명), 영암(··46명), 무안(··48명)에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을 진행중이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도 지난해와 올해 10곳의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취사장, 농번기철 음식 부담도 덜어='모내기철에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번기철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허덕인다.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는데 여성들은 매끼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야 한다.

강진농협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중인 공동취사장은 이런 농촌 현장의 고민을 덜기 위해 추진된 정

책이다. 영농 성수기인 농번기철에 공동취사장을 열고 강진 농협 임직원과 부녀회원들이 농민들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매일 다른 반찬과 간식까지 푸짐하게 준비해 제공하면서 농민들에게 10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일손이 많은 현장에서 가까운 3곳의 마을회관이나 유통센터 등을 선정해 매년 4~18일 간 취사장으로 운영하는데, 농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장화 신은 채로 일하다 와서 한기를 해결하고 일터로 곧장 복귀할 수 있는데다, 음식 장만 하느라 일터를 비울 필요가 없다는 것.

진성국 조합장이 취임한 4년 전부터 강진읍에서만 운영하던 취사장을 군동·성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지난 5월 29일부터 일주일 간 3곳에서 공동취사장을 열었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농협이 농민·지역사회와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소비자 10명 중 3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농축수산물 구매"

### 농경연 구매 의향 조사...국산 과일·과채류 구매 늘린다 54.5%

새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여름철 주요 과일·과채류 소비행태 및 2025년 구매 의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는 '농축수산물'이 3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필품(30.5%), 외식(26.2%)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의료서비스, 가전제품, 교육비 등 기타 항목들은 모두 4%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 소비쿠폰으로 농축수산물 구매 의향이 컸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농축수산물을 선택한 비중이 24.6%였으며, 외식을 선택한 비중이 33.3%에 달했다.

반면 미취학 자녀가 없는 소비자는 34.7%가 소비쿠폰 소비처로 농축수산물을 선택했고, 외식은 25.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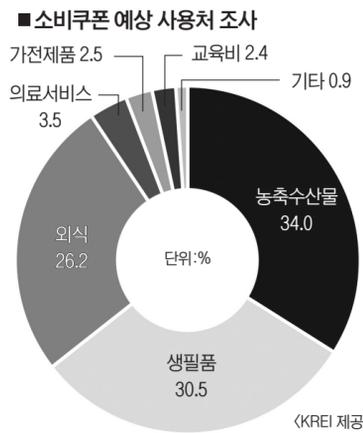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로 농축수산물 구매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항목별로 축산물(46.2%), 농산물(45.1%)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체 조사 대상의 54.5%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국산 과일·과채류 구매를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국내 과일·과채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 대신 수입산으로 대체하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소비쿠폰을 통해 국내산을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을 통한 국내산 과일·과채류 구매 예상 증가율은 대부분 20% 이하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 증가가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반 산업 육성, 지역 특화 벤처·창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KREI가 6월 19일~7월 2일 소비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남농관원, 9월까지 하계작물 현장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오는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2만 2000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혜택을 받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재배품목과 농지 등 변경된 농업경영정보를 농관원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이 영농활동 및 변경된 정보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정기 변경신고, 이행점검, 직관변경·직불감액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지난 4~6월 1단계로 지역 언론,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벼, 사과, 배, 포도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로 진행했으며, 총

5만 9000건의 변경신고가 이뤄졌다.

농관원은 또 오는 9월까지 변경신고가 이뤄진 필지 및 기존 필지 등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사무소별 부서장을 중심으로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등록된 정보와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또 재해보험 정보 등 연관 정보를 활용한 현장과 등록된 품목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하고, 현장 점검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기술 한눈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FRO 2025)'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AFF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사 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 박람회다.

농식품부 제공

## 농촌진흥청, 전남 농작물·농업시설물 침수 피해 점검

농촌진흥청이 심각한 폭우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침수 등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해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17일 21시 기준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 등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지난 18일 담양군과 곡성군을 방문해, 벼·논콩을 비롯해 멜론과 파파야 등 시설원에 작물까지 농작물 호우피해 상황을 살폈다.

권 국장은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 필요한 기술 지원 관련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 및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도와 방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사기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b>금융감독원 콜센터</b>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b>각 보험회사 대표번호</b></p>
<p> <b>금융감독원 홈페이지</b>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b>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b></p>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